

박정아 벌써 4승... '경정여왕' 부활 신호탄

최영재·한중석·반혜진도 4승 질주
나병창 등 전과 달라진 경기력 주목
심상철 등 기존 경정강자도 예열중

오랜 휴장을 끝내고 마침내 부분적이지만 경주를 재개한 2021시즌 경정. 벌써 재개장 9회 차가 지났다. 올 시즌부터 2020년 신형 모터보트를 사용해 선수들이 아직까지 완벽한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없지만 때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경정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초반 두각 나타내는 4명

강한 근성과 집중력으로 초반 4승으로 좋은 출발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다.

박정아(A2 43세)는 총 6회 출전해 1차 4회 2차 1회로 승률과 연대율, 삼연대율에서 66.7%를 기록하며 2019시즌(7승)의 부진을 완벽하게 만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4승 중 3승이 온라인 경주 우승이라는 점이 아쉽다.

최영재(A2 42세)는 승률과 연대율 66.7% 삼연대율 100%를 기록했다. 시즌 4승 중 3승이 플라이 경주에서의 우승이다. 스타트(평균 0.17초)감이 좋고 1턴 선회가 안정적이며 체중이 56.1kg라 온라인 경주도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8기를 대표하는 한중석(A2 43세)은 6회 출전 중 1차 4회 2차 1회 3차 1회로 승률 66.7% 연대율 83.3% 삼연대율 100%를 기록했다. 두 번의 온라인 경주에서 모두 우승을 거두며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정선수 박정아(A2 43세)가 경주 후 모터를 정비하고 있다. 박정아는 올 시즌 4승으로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2019시즌(7승)의 부진을 만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고 있다.

반혜진(A2 35세)은 6회 출전 중 1차 4회 2차 1회 3차 1회로 승률 66.7% 연대율 83.3%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박정아와 함께 여자선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4승 모두 온라인 경주에서 거두었지만 올 시즌 스타트(평균 스타트 0.23초) 감이라면 플라이 경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전과 확 달라진 경기력

나병창(A1 47세)은 작년까지 두드러진 성적(개인통산 165승)을 기록하지 못

했다. 하지만 올 시즌은 3회 출전 중 1차 2회 2차 1회로 승률 66.7% 연대율과 삼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손근성(A2 50세)도 개인통산 161승으로 지난해까지 평범한 모습이었다. 올 시즌은 3회 출전에 1차 3회(온라인 경주 2회 플라이 경주 1회)를 기록해 승률, 연대율, 삼연대율 모두 100%로 짝퉁이 우승했다.

이지수(A2 42세)는 좋은 집중력으로 3회 출전 중 1차 2회(온라인 경주) 3차 1회(플라이 경주)로 승률과 연대율 66.7%

삼연대율 100% 평균스타트 0.25초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경주서 확실히 입상해 성적을 끌어올렸다.

2019년 개인 최고의 성적(34승)을 올린 김완석(A1 40세)은 총 6회 출전 중 1차 3회(플라이 경주 2회 온라인 경주 1회) 2차 1회(플라이 경주) 평균 스타트 0.07초를 기록해 올 시즌도 주목할 선수로 꼽힌다.

●기존강자, 서서히 예열 중

기존 강자들은 조금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1기의 자존심 이태희(1기 A1 51세)는 6회 출전 중 1차 1회 3차 1회로 초반 부진하지만 노련한 경기력을 갖춘 만큼 곧 제 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승왕 타이틀을 3회나 차지한 심상철(7기 A1 40세)도 첫 경주에서 11연승에 도전했지만 2차으로 실패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번의 경주 모두 우승하며 승률 66.7% 연대율과 삼연대율 100%로 시즌 2승을 기록하고 있다.

2019 시즌 다승랭킹 15위 내 선수 중 김현철(2기), 아선규(4기), 김용선(11기), 류석현(12기) 등도 현재 2승으로 평범한 성적이지만 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서범 경정고수 경기분석위원은 “지난 시즌 중하위권 선수들이 휴장기간 단점을 보완하고 신형 모터와 함께 새 각오로 나서면서 순위권 경합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경주에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정·경륜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7일 수요일 9

비선수 출신 경륜 25기 안창진 우수급 6연속 입상 눈부신 질주



안창진

경륜을 비롯한 프로스포츠에서 아마추어 때 선수로 활동하지 않은 비선수 출신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최근 오랜만에 '선출'(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인 출신 선수가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으로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다.

1994년 출범 이후 장보규(A1 1기 대전 47세)를 시작으로 2013년 그랑프리 대상 경륜에서 우승한 박병하(S1 13기 양주 40세) 등 경륜에서는 간간히 비선수 출신의 스타가 탄생했다. 최근 이런 성공신화를 25기 안창진(A1 수성 31세)과 김태범(B1 김포 28세)이 이어가고 있다.

특선급 진입 도전에 나서고 있는 안창진의 행보가 특히 눈에 띈다. 그는 지난 시즌 1월 데뷔 이후 9연승을 하며 2월 우수급으로 특별승급했다. 코로나19로 레이스가 장기 휴장하면서 1년 여의 실전 공백기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6연속 입상을 하며 성공적인 우수급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 3월 부산 제6회(3월26~28일) 경주는 3일 연속 우승이라 더욱 빛이 났다. 다음 회차에서 연속 입상하면서 비선수 출신으로 특선급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안창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동호인들의 꿈의 무대인 '마스터스 사이클 투어'에 17회 출전해 우승을 3회나 차지했다. 경북 포항의 동호인 탑스피드 팀에서 활동하며 고된 주야간 교대근무 속에서도 실력을 키워 나갔다. 결국 대구 수성팀의 문을 두드렸고 비선수 출신인 류재민(S3 15기 수성 36세)의 도움으로 데뷔에 성공했다.

안창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항상 동영상으로 선수들을 파악하고 있다. 휴장 공백기에도 일은 안하고 계속 운동만 했다”며 “입상을 위해 몸싸움도 버릴 자신이 있고 선형을 기본으로 타이밍이 온다면 쫓히기도 염두에 둘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우 경륜위너스 예상부장은 “186cm에 97kg의 다부진 체격으로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단순선형만 고집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며 “뒤통나 편견을 버리고 비선수 출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 선수 출신들의 포용이 더해져 경륜을 꿈의 무대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경륜·경정 제도 인권 혁신협의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기금 조성총괄본부가 3월 31일 광명 스피돔 연수원에서 '2021년 제3차 경륜·경정 제도 인권 혁신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륜·경정 경주실 관계자와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 한국프로사이클협회 그리고 한국경정선수회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협의

회에서는 스포츠 인권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분야 인권감사인 박외숙 씨를 초청해 인권의 시대적 변화 및 스포츠 경기의 평등권, 인권침해 실태와 유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혁신협의회 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수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직원과 선수 간에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등 경륜 경주 운영 계획 변경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스포츠클럽이 휴장한다. 광명스피돔에서 열리는 무관중 경주와 창원레포츠펙크의 경륜 경주는 정상 진행된다. 김해지점과 충청권에 위치한 대전·천안지점도 좌석 20% 내에서 입장이 가

능하다. 부산스포츠클럽과 광복·서면지점에서 관람이 가능했던 경정 경주는 같은 기간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변경된 경륜 경주 운영 계획은 11일까지이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지한다. 기타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륜, 경정 홈페이지와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5개월 만의 명인열전...임성재, 이번엔 마스터스 '그린자켓' 입어보자!

8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티샷
랭킹 1위 저스틴 존슨 등 88명 출전

5개월 만에 열리는 '명인열전', 임성재(23)는 지난 대회와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8일 밤(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올해로 85회 짝을 맞는 명인열전은 매년 4월 이맘 때 열리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11월에 펼쳐지면서 5개월 만에 새로운 그린자켓 주인공을 가리게 됐다.

임성재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마스터스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하며 최종합계 15언더파로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004년 최경주(단독 3위)를 넘어 아시아인 역대 마스터스 최고 성적을 거뒀다.

마스터스 준우승 후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됐던 임성재는 올 초 센트리 토너먼트 챔피언십(공동 5위),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선 3월 혼다 클래식(공동 8위)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높아진 눈높이에는 다소 모자란 성적을 거뒀다. 지난 주 열린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 나서지 않고 일찌감치 오거스타로 향한 임성재가 '젊



임성재가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마스터스 연습라운드 16번 홀에서 물수제비 샷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은 승부사'답게 또 한번 큰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무관중으로 펼쳐진 지난 대회와 달리 일부 갤러리의 입장이 허용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랭킹 1위 저스틴 존슨(미국) 등 총 88명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는 임성재와 함께 김시우(26)가 나선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불참하지만, 대회 명성에 걸맞게 이번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위 브라이언 디샬보(미국)

등 톱 랭커들이 총 출동한다.

벤티업 업체들이 품은 '우승후보' 1순위는 존슨이다. 윌리엄 힐은 존슨의 우승 배당률을 9/1로 책정했고, 그 뒤를 이어 조던 스피스(미국)와 디샬보가 나란히 11/1, 저스틴 토마스(미국)와 온 램(스페인)이 12/1이었다. 존슨은 마스터스 우승 이후 올해 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든 것은 1번(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공동 8위) 뿐이지만, 세계 1위급에 안정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 또 주목해야 할 선수는 스피스다. 발레

로 텍사스 오픈에서 3년 9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통산 12승을 달성한 스피스는 2015년 그린자켓을 입는 등 그동안 마스터스에서 우승 1회, 준우승 2회, 3위 1회를 차지하는 등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유독 강했다. 오랜 슬럼프를 딛고 우승을 차지해 자신감이 높아진데다 개인 통산 3번의 메이저대회 우승 때마다 직전 대회에서 우승 또는 3위 이상 성적을 냈던 사실도 스피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골프

1879 몬테밀라노 골프대회 男 유종만·女 이현자씨 우승



프리미엄 국산 골프클럽 브랜드 1879골프(회장 이동현)와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1879만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마련 몬테밀라노 골프대회'가 5일 강원 원주시 센추리21CC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160여 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차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 메달리스트(스트로크) 남자부 부문에서는 유종만 씨(66타), 여자부 부문에서는 이현자 씨(73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 준우승은 김승오 씨(68타), 여자부 준우승은 이지화 씨(74타)에게 돌아갔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펼쳐진 단체전에서는 정규은 팀(71.3타)과 박지은 팀(71.4타)이 우승과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1879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 골프 대회는 센추리21CC를 비롯해 뉴서울CC(경기 광주), 군산CC, 골프클럽Q(안성), 아라미르CC(창원), 포도CC(김천) 등 전국 6개 골프장에서 순차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도현 기자